

전남 동부권

# 섬진강 생태탐방 300리길 만든다

## 곡성군 내년부터 54km 강변 스토리텔링화

최근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 등 도보여행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곡성군이 섬진강 생태탐방길을 조성한다.

곡성군은 내년부터 5개년 프로젝트로 섬진강을 따라가는 녹색문화 여행길인 (가칭) '섬진강 생태탐방 300리 나들길'을 연차적으로 조성한다.

군은 현재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사

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장기 계획으로 관내를 흐르는 섬진강과 보성강 등 54km에 달하는 강변에 '스토리텔링화'한 생태 탐방길을 조성, 관광자원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섬진강 생태탐방로가 곡성의 청정한 생태환경을 접하고 강을 따라 걸으며 자연과 소통하는 학습의 길, 건강을 돕고 치유하는 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2011년 10월 07일 17:00  
追 悼 祭 慕 江 山 林 裕 全 先 生 西 便 制 鼻 祖 追 悼 祭 慕 江 山 林 裕 全 先 生 西 便 制 鼻 祖

##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 선생 추모제

유네스코 판소리문화보존회

조선 후기 판소리 명창인 박유전 선생은 '서편제'에서 갈라진 '강산제'를 창시했으며, 흥선대원군이 선생을 "천하제일 강산(天下第一江山)"이라고 일컫으며 진사 벼슬과 오수경(烏水鏡)을 선사한 일화가 있다.

유네스코 판소리문화보존회(위원장 선형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추모제는 초헌관에 보성군의회 선병진 의장, 아헌관에 김용환 전 문화위원장, 종헌관에 선형수 위원장이 각각 맡아 봉행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 광양시·POSCO 광양제철소

### 오늘 비바 선사인 축제

광양시와 POSCO 광양제철소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광양 100년의 도약을 염원하는 대화합 축제인 '비바(viva) 선사인 페스티벌'이 11일 중마 일반부두 근린공원에서 개최된다.

'태양, 행복의 열매를 맺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페스티벌은 포스코 백운장학금 20억원 전달, 다문화가정 주부 편지 낭독, 철 위에 그리는 시민 행복 및 시민 영상메시지 상영, 다양한 장르의 초청가수 공연, 환상의 불꽃 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시민참여 이벤트와 특산물 판매, 버꾸놀이 공연, 시민 열린무대 공연이 이어진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광양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는 동시에 15만 광양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 식재 정원수 50그루 헬기 수송

2013 순천 국제 정원박람회장에 식재할 크나무(대경목)들을 대형 헬기로 운송하는 작전이 펼쳐져 관심을 끌고 있다.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산림청 초대형 헬기(S-64)를 이용해 오는 15일까지 정원박람회장에 식재할 크나무 50그루를 운송할 계획이다.

헬기로 운반되는 나무들은 수령 50년 이상인 소나무와 상수리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등 14종으로 무게 6내외에 달한다. 운송거리는 승주읍, 낙안면 등 급경사지에서 정원박람회장까지 10~26km이다.

조직위와 산림항공본부는 크나무 헬기 운반을 위해 지난 9월 수송계획을 확정하고 이·착륙지점과 나무크기, 운송 가능여부 등 모든 준비를 마



산림청 초대형 헬기(S-64)가 10일 정원 박람회장에 심을 수령 50년 이상 크 나무 50그루에 대한 수송을 시작했다. 국제 정원박람회는 오는 2013년 4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지구'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순천만 일원에서 열린다. (순천시 제공)

## ■ 새 얼굴

### 조합원에 희망주는 조합 만들겠다

차중훈 고흥수협조합장

"창조적인 변화와 개혁으로 조합원을 위한 조합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일 취임하는 차중훈(55) 고흥군 수협조합장은 "조합원이 제 목소리를 내는 '조합원 중심의 조합'으로 변화시키고, 출자배당과 탈퇴 출자금을 지급하는 건전한 조합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조합원에게 희망을 주는 조합을 만드는데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흥 출신인 차 조합장은 순천 제일대학(행정 전문학사)을 졸업했으며 고흥군 수협에서 33년간 근무하며 기획검사, 탐퇴 출자금을 지급하는 건전한 조합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조합원에게 희망을 주는 조합을 만드는데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격중기자 gjju@



## 동학혁명 기념일 연내 제정 힘들듯

### 추진위 활동 중단... 동학재단 새방향 모색

동학 농민혁명(1894년)을 기리는 국가기념일 제정이 연내에 어려울 전망이다. 기념일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논란 끝에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고, 추진주체가 새로운 기념일 제정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념일 후보로 동학 농민군이 관군에 처음 승리한 '활토현 전승일'(1894년 5월 10일)과 동학농민군이 창의문을 발표한 '고창 무장기포일'(1894년 4월 25일) 등이 거론돼 왔다.

10일 문화관광부 특수법인인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에 따르면 동학기념일 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동학 전문가와 학계·언론계 인사 등 23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8월 27일 제3차 회의에서 파행을 겪은 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당시 정읍지역 동학단체 회원들은 "특정 후보일을 선호하는 일부 위원



순창 물동골 밤줍기 체험

최근 순창군 구림면 물동골 정보화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밤줍기 체험을 하고 있다. 물동골 정보화마을은 지난해 썬채소와 블루베리 등 농·특산물을 전지상거래와 방문객 직접 판매를 통해 2억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순창 블루베리, 농진청 공모 사업 최우수상

국비 지원받아 단지 조성

순창군이 추진하는 전국 최대 명품 블루베리 단지 조성 계획에 탄력이 붙었다.

10일 순창군에 따르면 전라직무으로 육성중인 '블루베리'가 농촌진흥청 주관의 '2012 지역농업 특성과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 내년에 국비 2억 52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 군은 블루베리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3년에 걸친 식재지원과 블루베리 시범연구포장 조성 등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현재 관내 430농가



## 도내 SSM 28개... 5년새 9배 급증

### 동네 상권 붕괴 가속화

대형 유통업체 완주·진안 등 군지역까지 침투

전북지역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SSM은 대기업 계열의 700㎡~3000㎡ 미만의 대형 슈퍼마켓을 의미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까지 3개에 불과했던 SSM은 롯데슈퍼와 GS, 김스클럽 등 대형 유통업체의 잇따른 진출로 올해 현재 28개에 달한다. 5년 만에 무려 9배가 증가한 것으로 올해에만 7개가 새로 진입했다.

특히 최근 3년(2009~2011년)간

## 뉴스 브리핑

### 군산시 美 오리클 오픈 녹색성장 기업 혁신상

군산시가 지난 6일(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오리클 오픈 월드(Oracle Open World) 2011'에서 '녹색성장 기업혁신상(Eco-Enterprise 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

시는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을 구축해 사무실에 있을 때와 동일

### 익산 '자색 고구마' 원료 막걸리 출시

익산시가 지역에서 재배한 자색 고구마를 원료로 한 막걸리를 출시했다.

이번에 익산 농업기술센터와 함라 양조사가 함께 개발한 이 막걸리 브랜드는 '자주빛고운밤'이다.

일반 고구마와 달리 자색고구

### 정읍시 내장 단풍나무 양묘장 조성

정읍시는 내장 단풍나무 명품화 일환으로 하북동에 9000㎡의 단풍나무 양묘장을 조성했다.

시는 양묘장에 내장산에서 자생하는 내장단풍 등 단풍품종 10종을 야기단풍, 분재형단풍, 가로수형단풍 등으로 구분해 심었다.

### 김제경찰, 유사석유 판매주유소 특별단속

김제경찰서(서장 조용식)은 김제 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관내 유사석유 제조 및 저장, 판매주유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나섰다.

이런 집중단속은 최근 유사석